

## 정신건강이 최고

‘100세 시대’ 불자들, “노후엔 정신적 귀의처 필요”  
본지 설문조사... 노년기 ‘공동체 수행 원한다’ 31%

불자들은 편안한 노후를 위해 ‘수행공동체’ 등의 정신적 귀의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행공동체와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간 전국 불자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0세 시대, 불자의 노후 대비 의식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결과는 매년 0.5세씩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현실에, 불교가 ‘정신건강’을 충족시켜줄 대안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노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791명 중 25.0%가 ‘노후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정신적 귀의처 마련’을 꼽았고, ‘경제적 자립’(22.9%), ‘실버타운·요양시설’(20.2%) 등은 그 다음을 이었다. 또 노후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의 25.8%도 ‘정신적 귀의처 마련’을 선택했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은 노인복지시설 선호도 및 출가 의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응답자 10명 가운데 3명이 노후 생활처로서 ‘수행공동체’를 선호했

다.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을 안다고 답한 응답자 31.0%가 ‘수행공동체’를 꼽았으며, ‘실버타운’(26.2%), ‘노인복지센터’(21.8%) 등도 고르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 46.3%가 ‘여건이 된다면 출가 또는 단기출가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이런 욕구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 63.3%가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해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불자가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7.1%만이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모른다’는 무려 62.2%에 달했다. 여기에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시설이 열악할 것 같

다’고 답해, 불자들의 불교계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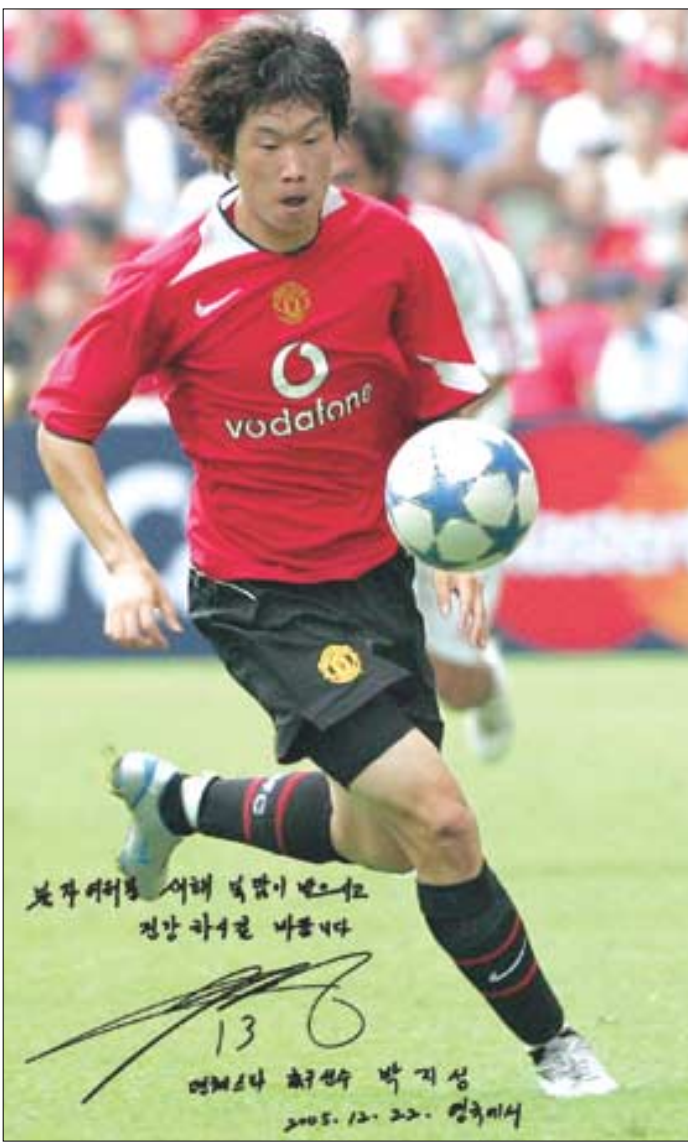
죽음 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44.8%가 ‘필요성은 느끼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으며, 선호하는 죽음 서비스는 죽음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임종교육’(28.8%)이 가장 높았다.

이혜숙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불자들이 노후생활처로 수행공동체를 선호하는 것은 아름다운 회향을 위한 욕구에 부응하려는 이유 때문”이라며 “임종준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불자들 요구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 불교계는 앞으로 수행지도와 죽음 준비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연립대별로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관련 기사 A5·6·7·8면 김철우 기자

### 복지법인도 외부이사 올 국회통과 전망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도입을 명시한 법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불

교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법인에 한해서는 그 이사 중 1명을 지역사회 의 확신과 경협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2006 '희망'을 쓴다  
이기도 한 새해를 앞두고 영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불자 축구선수 박지성이 12월 22일 본지에 “불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새해 인사말을 보내왔다. 박지성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영국에 온 어머니가 매일 인근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선지 힘이 절로 난다”고 밝혔다.

새해 불자들의 모든 소원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 ‘현대불교’ 새로워집니다

- **심층 기획 기사 강화**  
불교계의 인과 밖을 함께 주시하며 이성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심층 기획 기사를 매주 생산합니다.
- **지역뉴스 지면 확대**  
지역불교 활성화가 한국불교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신념으로 지역 뉴스면을 2개면에서 3개면으로 늘렸습니다.
- **세계 불교를 한 눈에**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본지 통신원들이 지구촌 불교소식을 빠르게 전합니다.
- **인터넷 세상 읽기**  
인터넷은 이제 생활입니다. 인터넷 세상의 불교를 지면에 담아 불자들이 유비쿼터스 세상을 따라잡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 **불교 경제 '알아야 잘 산다'**  
불교와 경제, 알고 보면 둘이 아닙니다. 불교계의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고 불자들의 바른 경제활동을 안내합니다.
- **웰빙라이프 행복의 길**  
불교 잘 믿는 게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사찰 음식과 각종 운동요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인생의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 **대중문화 속의 연꽃 향기**  
스포츠 연예계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세상의 불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인기 스타에서 '무명'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속의 다양한 사연들을 찾아 갑니다.
- **새로운 연재**
- **선(禪)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원순 스님의 쉽고 재미있는 <선가귀감> 풀이
- **만화 '행복동 사람들'**  
배종훈 화백이 '삼세연과경'의 눈으로 그리는 세상
- **불화속의 명정면**  
2005년 일본의 권위 학술상 '국화상'을 수상한 미술사학자 강소연 박사가 소개하는 전통 불화 속에 담긴 흥미로운 '비밀'들.

## 지 / 면 / 안 / 내

### 신년특집 48면 발행

<b>특집 / 100세 시대가 왔다</b>	
설문으로 본 불자들의 100세 시대 인식	A5면
수행으로 삼 회향	A6면
불교노인복지시설 현황과 방향	A7면
불교계 '죽음 준비' 실태와 과제	A8면
<b>특집 / 동국대 100주년</b>	
불교대학 · 불교대학원 동문 설문	A12~13면
<b>특집 / 지역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b>	A16~17면
신년인터뷰-김인숙 원장 · 김의정 회장	B1면
각종단 신년법어	B3면
만화로 여는 새해	B5면
큰스님 편안하십니까-진제스님편	B12~13면
산사에서 새해 맞자	B20면
제11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B16~17면

## 2006 군포교 합시다

조계종 군중 교구 · 본사 캠페인 전개

군포교의 각종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군법사와 군불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 군중 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조계종 군중교구 출범 첫 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캠페인은 '사찰-군법당-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

체계를 갖추으로써 군포교 활성화에 이끔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된다.

조계종 군중교구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군법당 건립·후원 기금과 물품, 불서(佛書) 등을 모아 군법사가 없거나 군법당이 없는 부

## 사찰-군법당-기업이 손잡는다

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하는 후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군법사 1~2명이 10여개 군법당을 담당해야 하는 등 군포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1사찰-1군법당 결연, 1종립학교-1군법당 결연, 1단체-1군법당 결연, 1가정-1군법당 결연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 사찰-전역사병, 군법당 신도회-

사찰신도회간 교류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불교신문사는 고정지면을 배정, 군포교 관련 기획기사와 어려운 여건 속에 정진하는 군불자들의 소식을 현장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캠페인 진행상황과 내용도 <현대불교> 지면과 인터넷 실시간 <부타뉴스>(buddhanews.com)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된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

인 등 누구나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으며, 이미 군법당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나 사찰도 함께 할 수 있다. 동참 방법은 △자매결연 △군법회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정기적인 물품 전달 △법사 지원 등으로 가능하다.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중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38  
한명우 · 박봉영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50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비등을 밝히겠습니다”

# 大韓佛教曹溪宗

宗 正 法 傳  
원로회의 의장    종 산  
총 무 원 장    지 관

중앙총회 의장    법 등    호 계 원 장    월 서  
교 육 원 장    청 화    포 교 원 장    도 영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WWW.BUDDHISM.OR.KR